



EPIPHANY

CATHOLIC CHURCH

In your neighborhood. In your life.



MASS SCHEDULE

Saturday Vigil

5:00 pm

Sunday

7:30 am

9:00 am (Korean)

10:30 am

12:00 pm (Lithuanian)

Last Sunday of the Month

Monday - Friday

7:30 am

Holy Days of Obligation

7:30 am & 7:00 pm

Confessions

Monday - Friday

8:00 - 8:30 am

Saturday

4:00 - 4:30 pm

Eucharistic Adoration

**Currently suspended.*

Wednesday

5:30 - 6:30 pm

EIGH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1, 2021

Rev. Stefan Megyery

Administrator

SACRAMENTS & PARISH SERVICES

Infant Baptisms

Please visit the parish website to register online, or contact the parish office.

Marriage

Please call at least six months prior to the anticipated wedding date. Parish registration, marriage preparation, and instruction are required.

Sick Calls

Please call if any parishioners are in need of the Sacrament of the Sick.

Religious Education (CCD) for Children

For those preparing for First Holy Commun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for Adults (RCIA)

For those who would like to join the Catholic Church.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Adult Confirmation

For Catholics who have not received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Parish Membership

New parishioners may register online by visiting the parish website.

Contact

2712 Dumbarton Street, NW

Washington, D.C. 20007

(202) 965-1610

epiphanygeorgetown@gmail.com

www.georgetownepiphany.org

The parish office is closed every Monday and Friday.

**MEDITATION
ON TODAY'S READINGS
Eigh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Would that we had died at the Lord's hand in the land of Egypt, as we . . . ate our fill of bread! (Exodus 16:3)

As the old saying goes,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It's better to have a sure thing than to hope for something better that's not guaranteed. That seems to capture the Israelites' complaint to Moses. They would rather be enslaved in Egypt and have enough to eat than trust God to lead them to the Promised Land. After all, they are hungry!

It might seem shortsighted. God had just freed the Israelites from slavery in Egypt. He parted the Red Sea for them to pass through and provided water in the desert. Why didn't they trust him to take care of them? Why were their sights set so low, on such immediate needs?

The short answer is, it's human nature. The needs that loom before us can make us forget God's faithfulness. It's like the crowd following Jesus in today's Gospel: they searched for him, not because they had seen healings and miracles, but because he had filled their bellies (John 6:26). Even when Jesus told them that he was the "bread of God," the One who came down from heaven to give life to the world, they still seemed preoccupied with physical food (6:33).

It can be hard to trust that in the long term, God will bring good out of a hard situation when all we want is relief. It can be a challenge to remember his promises when all we can see is what we're lacking. We need a sign of God's faithfulness, a reminder that he takes care of us.

The Eucharist is that reminder. Day after day, Jesus offers himself: the Bread come down from heaven. So today, when you receive Communion, place those pressing needs before the Lord. Receive him and know that he has you in the palm of his hand.

"Lord Jesus, you are the Bread of Life. Help me hunger for the food that endures."

Psalm 78:3-4, 23-25, 54 Ephesians 4:17, 20-24 John 6:24-35

The WORD Among Us

MAINTENANCE COLLECTION

The second collection next weekend, August 7-8, will benefit routine maintenance and necessary repairs. Please give generously to support the upkeep and preservation of our beautiful and historic Epiphany Catholic Church.



**EPIPHANY CATHOLIC CHURCH
MEMORIAL GARDEN FUNDRAISER**



Epiphany Catholic Church is selling commemorative, laser-engraved bricks, which will form a *Memorial Garden* in the front yard of the rectory before the statue of the Blessed Mother. Each 4"x8" brick can accommodate 3 lines of English, Korean, or Lithuanian text, limited to 18 characters per line (including spaces and punctuation). Bricks are only available for purchase on our website. (Go to www.georgetownepiphany.org. The purchase form is located under the "Events & News" tab. Payment is by electronic check – no credit cards.) The prices are 1 brick for \$300 or 2 bricks for \$500. Please consider making a generous donation in memory of someone important in your life. Order yours today!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July 31 Vigil	5:00 p.m. † Mavourneen Deegan McCarthy
Sunday, August 1 EIGH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7:30 a.m. Special Intention 9:00 a.m. Korean Mass 10:30 a.m. † Frances Sadowski
Monday, August 2 St. Eusebius of Vercelli St. Peter J. Eymard	7:30 a.m. † Zeneida Quezon Avancena
Tuesday, August 3	7:30 a.m. Special Intention
Wednesday, August 4 St. John Vianney	7:30 a.m. † Jose Aleman
Thursday, August 5 Dedication of St. Mary Major	7:30 a.m. Special Intention
Friday, August 6 TRANSFIGURATION OF OUR LORD	7:30 a.m. † Alberto Orosa

Dear Brothers and Sisters at Epiphany Parish,

A couple of months ago, Msgr. Jameson, then-Administrator of Epiphany parish, turned to you for help in a financially difficult situation, realizing that the parish was operating with a deficit.

In Matthew's Gospel, Jesus promises that prayers will be heard and during these last weeks this has come true in the most marvelous way here at Epiphany Parish because we received so many wonderful donations in response to his letter.

Our total fundraising efforts amounted to \$91,160.

This exceeded all our expectations and it is a huge contribution to our ongoing efforts to provide the parish with a stable and self-sustaining financial foundation.

As your new Administrator, I am deeply touched by so much good will and generosity. This demonstrates a great love for and bond with our parish. May God bless you all.

On behalf of the entire parish family, I want to express my heartfelt gratitude to everyone for the kind and generous support.

I also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generous support of the 2021 Annual Appeal. I was just informed that thanks to your contributions we have almost reached our goal. Again, please accept my heartfelt gratitude.

May God bless you all,

Rev. Stefan Megyery, Administrator

Paul M. Trasher, Chair, Finance Council

주님 공현 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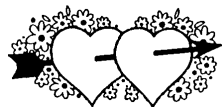
시작성가	21	성체성가	163
봉헌성가	212	마침성가	63
제1독서	탈출기 16,2-4.12-15	복음 환호송	
화답송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제2독서	에페소서 4,17.20-24	복 음 요한 6,24-35	
		나에게 오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6.35)..	

◎ 금주 2차 헌금 오늘은 본당 운영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주일 헌금 및 기부금 안내 에피파니 성당에 헌금 및 기부금은 본당 웹사이트(georgetownepiphany.org)에 있는 Online Giving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Memorial Garden 본당 성모상 주변에 조성할 “기념 정원” 신청 받습니다. 기념 정원 벽돌은 (크기는 4”×8”) 한글이나 영어로 세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줄에 띄어쓰기와 부호를 포함 18자). 벽돌 하나의 가격은 \$300이고, 2개는 \$500입니다. 기념 정원 신청은 본당 웹사이트(www.georgetownepiphany.org)에서만 가능합니다.

◎ 성인 예비자 교리 2021-2022년 예비자 교리는 9월부터 시작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예비자 교리반에 초대합니다. 견진 성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쉬고 있는 신자들을 초대하셔서 재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황님의 8월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 교회

성령께서 교회에 은총과 힘을 베풀어 주시어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 기도]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아끼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회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 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승인)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축일 8월 4일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Joannes Maria Vianney)는 1786년 5월 8일 프랑스 리옹(Lyon) 근교에서 열심한 가톨릭 신자로 농부인 마태오와 마리 블루즈 사이의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비안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5세 때에는 파리(Paris)에서 가톨릭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추방되고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비안네는 어린 시절을 주로 부친의 농장에서 양을 치면서 지냈다. 정규 교육은 몇 개월밖에 받지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여 비밀리에 첫 고해(1794년)와 첫영성체(1796년)를 받았다.

18세 때 부친의 허락을 받고 에쿨리(Ecully) 본당 발레(Balley) 신부의 지도를 받으며 개인적으로 사제직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였으나 기초 교육이 부족하고 수학 능력도 많이 떨어졌다. 특히 라틴어 공부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신학생이었던 비안네는 1809년에 징집을 당해 갖은 고통을 겪었다. 1811년에 베리에르의 소신학교에 입학하여 철학 과정을 공부하고 1813년에는 리옹의 대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였으나, 라틴어 성적이 좋지 않아 1년 만에 퇴학당한 비안네는 학과 성적은 부족하였지만 발레 신부의 도움으로 신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신심과 성품을 인정받아 1815년 8월 13일 그르노블(Grenoble)에서 시몬(Simon) 주교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았다.

사제 서품 후 발레 신부가 있는 에쿨리 성당에서 2년 동안 보좌 신부로 생활한 비안네 신부는 1818년에 230여 명의 주민밖에 살지 않는 작은 마을 아르스의 본당신부로 부임하였다. 그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42년 동안이나 봉직하면서 주민들에게 열렬한 신심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비안네 신부의 노력으로 아르스의 종교적인 분위기는 일신되었고, 그 또한 설교자와 고해신부로 대단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 1827년부터 수천 명의 고해자들이 그에게 성사를 받기 위해 한적한 시골 마을 아르스로 찾아올 정도였다. 매년 2만여 명의 신자들이 비안네 신부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는 오전 11시에 설교를 하고 성무일도와 식사, 특별한 상담 시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때까지 약 18시간 정도 고해성사를 주어야 했다. 그러나 그의 동료 사제들은 그를 잘못 판단하고, 그를 무식하고 지나치게 열성적이며 허풍선이라고 비난하곤 하였다. 이에 대해 그의 주교는 “저 신부만큼이나 모두 미쳤으면 좋겠다.”고 하며 그를 옹호하였다.

이렇게 열심한 그 역시 가끔씩 사탄의 유혹을 받기도 하였다. 그의 성품은 지극히 단순하였고, 충고는 간단명료하였으나 신심이 차고 넘쳤으며 직선적인 설교를 하였다. 순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8월 6일

예수께서 지상생활 중 잠시 신성(神性)을 드러내심으로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사건. 복음(마태 17:1-13, 마르 9:2-13, 루카 9:28-36)에 기록되고 2베드 1:18에 암시되어 있다. 이 사건의 장소 ‘높은 산’은 전승에 의하면 다보산이며 그 위에 기념성당까지 세워져 있으나 이와 달리 헤르몬산 또는 올리브산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다. 이 사건의 시기는 베드로의 말을 미루어 보아 이스라엘인 장막축제를 지내는 연중 7째달(9~10월) 15~22일경으로 보인다. 여기서 예수님은 야훼의 종 메시아에 관한 성서의 말씀을 실현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시며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파스카의 신비가 암시되어 있다.

예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미래의 영광된 변모를 가리키는 예표이다. 그리스도인은 종말에 경험할 완벽한 ‘영광스러운 변모’를 기대하면서 현재에 영광스러운 변모를 거듭하도록 불려진 사람들이다(2고린 3:18). 그리스도인은 성사적인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을 성공적으로 완주하는 것이다.

www.catholic.or.kr



자들의 소란, 끊임없는 고해성사 요구들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였다. 그는 단지 세 번 아르스를 떠났는데, 그것은 모두 수도원에 잠시 다녀온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비안네 신부는 열심한 성무에 지친 나머지 1859년 8월 4일 73세의 나이로 아르스에서 사망하였다. 1905년 1월 8일 교황 비오 10세(Pius X)에 의해 복자가 된 비안네 신부는, 1925년 5월 31일 교황 비오 11세에 의하여 시성되었으며, 1929년에는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본당 신부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다.

www.catholic.or.kr